

## 教育的 側面에서 본 性教育

梨花女子大學校 師範大學

朴 俊 熙

### 1. 性教育的 性格

教育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側面에서 볼 때에 狹義의 教育和 廣義의 教育의 두가지로 나눈다. 狹義의 教育이라 함은 例컨대 學校教育和 같이 一定한 對象을 一定한 目的, 內容, 方法으로 一定한 施設에서 一定期間을 計劃的으로 實施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廣義의 教育은 一定한 目的이나 方法을 計劃的으로 또는 組織的으로 使用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隨時로 그리고 아무데서나 이루어지는 教育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狹義의 教育은 지극히 意圖的인 計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廣義의 教育은 非意圖的이거나 非計劃的인 것까지도 包含되는 것을 말한다. 例컨대 偶然히 길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거나 行動하는 것을 보고, 듣고 스스로 感化를 받거나 새로 배운 것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分明히 廣義의 教育이다. 그러므로 廣義의 教育은 社會生活을 해나가는 동안에 반드시 意圖的인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結果的으로 教育이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廣義의 教育의 效果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에 性教育은 狹義의 教育의 範疇에 속할 수도 있지만 實地에 있어서는 廣義의 教育의 範疇에 속하는 側面이 많다고 할 수가 있다. 國語나 英語는 教科가 獨立되어 있지만 아직 性教育이 獨立된 教科를 이루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다. 教科教育中 關聯된 部門이 있으면 그것과 關聯해서 적절한 方法으로 性教育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많은 것이 事實이다. 또한 設使 意圖的으로 性教育을 한다고 해도 生活教育의 一部로서의 性教育이라는 테두리에서 하

는 경우가 大部分이고 獨立된 內容으로 分離시켜서 하는 일은 極히 드물은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둘째로 性教育은 基本的으로는 人間教育이다. 教育의 內容이란 結局 보람을 느끼고 幸福스러운 生活을 하면서 結果的으로 社會와 國家의 發展 및 文化의 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자는 것이라고 한다면 人間の 幸福을 찾는 데에 있어서 가장 基本이 되는 것이 性的인 欲求의 바람직한 發散과 아울러 子孫의 繁殖에 必須不可缺의 것이라는 點에서 참다운 人間教育의 一部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人間이기 때문에 다른 動物과는 달리 性倫理를 간직하고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點에서 人間教育의 一部가 아닐 수가 없다.

세째는 人間の 基本欲求의 바람직한 解消와 充足을 위해서 必要한 것이다. 解釋하기에 따라서는 意見이 다를 수 있겠으나 적어도 食欲 다음으로 基本的이라는 것은 누구도 否認 못할 것이고 이것의 發散이 없이는 살기도 어렵거니와 人類의 發展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므로 人類의 發展을 위한 欲求充足을 위해서도 必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네째 性的 生理的管理를 通해서 健康을 圖謀해야 한다는 點에서 역시 健康教育의 一面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健康第一이란 말이 있거니와 平素에 性과 關聯된 健康을 圖謀하게 하는 것은 健康에 대한 態度는 물론, 性에 關聯된 各種疾患을 생각하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性教育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人間이기 때문에 性에 對한 態度, 知識, 方法 등에 關聯해서 잘 알고 있음으로써 現代를 사는 人間으로 不足함이 없어야 하고 또 스

스로의 行動을 바람직하게 간직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땅히 重要的 關心事가 아닐 수가 없다.

## 2. 韓國의 實情

그러면 오늘 우리의 實情은 어떠한가 또 지난날은 어떻게 해왔는가 性教育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時代와 社會의 條件에 따라서 그 形式과 方法에는 變化가 있어야 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뜻에서 지난날 韓國에 性教育이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에 없었다는 사람도 있고 있었다는 사람도 있다. 歷史的인 狀況이란 오늘의 狀況에서 解釋하는 것으로는 困難할 때가 있다. 역시 歷史는 歷史이므로 그 當時의 時代社會的인 狀況에서의 理解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보면 지난날에는 지난날대로의 性教育이 있었던 것은 事實이다. 가령 男女七歲不同席도 하나의 性教育, 性倫理의 形式으로서 重要的 生活倫理인 同時에 그런대로 性教育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觀察力이 강한 孔子가 볼 때에는 七歲水準에서도 이미 性的으로 問題가 생길 수 있으니 서로 接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問題를 豫防하는 뜻이 들어 있다고 볼 때에 하나의 性教育方式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때는 그래도 지날 수 있는 時代社會的인 狀況이기 때문에 그것이 可能했던 것이기도 하다. 勿論 예수의 간음하지 말라는 式의 開放과 自由의 狀況에서 自律的으로 行動하라는 教育方式과 다른 點이 있어서 孔子의 경우가 보다 東洋的이고, 敎導的이고 專制的이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리하여 그때는 그런대로 社會가 維持되게 되었다. 不同席만이 아니라 그밖에도 平素의 子女에 대한 訓戒, 態度, 敎育, 婚姻과 出家에 따르는 指導 등이 그런대로 오늘과 같이 合理的이고 科學的인 것은 아니었어도 比較的 適切히 이루어져 왔었다고 할 수가 있다. 특히 어머니의 딸에 대한 性教育은 道德, 倫理的인 側面에서 철저히 期한 경우도 많이 있다. 아버지의 딸에 대한 敎育도 없지 않았으니 우암 선생의 戒女書 같은 여러 部門에 걸친 幅 넓은 敎育이지만 그 속에는 性教育의 內容과 뜻이 많이 包含되어 있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男女七歲不同席의 生活倫理의 테

두리에서 이루어졌고 그때는 그런대로 그렇게 可能했었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오늘의 實情은 決코 지난날의 그런 狀況과는 너무도 다르나 무엇보다도 男女七歲不同席의 生活倫理는 理論的으로 보나도 實際的으로 지켜지지도 않고 지켜서도 아니되는 社會로 發展했다. 다시 말하면 平等하게 開放된 狀況속에서 살아야 하고 살도록 해야 하는 狀況으로 바뀌어졌다. 萬一 男女七歲不同席의 倫理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미 社會는 그 發展을 위해서 女子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바라는 狀況인 이상,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各處에서 應分의 일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인 이상 性教育의 性格은 지난날의 그것과 全然 樣相을 달리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開放社會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디서나 異性은 自由롭게 接觸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性慾自體는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없다는 事實을 直視해야 한다. 不同席이면 그 自體가 問題의 發生을 그것으로 豫防할 수 있으나 開放해 놓고 自由와 平等의 機會를 주고도 自律的으로 問題의 發生을 어려운 일이지만 豫防하고 스스로 克己를 實踐케 하는 知識과, 態度와 方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니될 狀況이 되어 버렸다. 貞操觀念自體가 神話的인 것이라는 理論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一般的으로는 男女가 다같이 지켜야 할 때까지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支配的이고 적어도 그 程度의 생각이 옳다는 것이 支配的인 오늘에 있어서는 問題意識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筆者는 이런 經驗이 있다. 女子 中·高等學校에서 學生을 指導하는 女敎師가 約 二百名 모인 자리에서 性教育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數年前에 必要가 있어서 서울市內 某 男子 高等學校 二·三學年中 性行爲의 經驗이 있는 數를 調査한 結果 25% 水準이었다고 하니까 모든 女敎師가 約束이나 한듯이 「거바 男子는 모두 도둑놈이야」하고 一齊히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거기서 筆者는 이것이 決코 꿈이나 作文이 아니고 實際經驗을 뜻하므로 반드시 相對의 女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런 女子들中에는 相當數가 當身들이 指導하는 女學生들이라는 事實

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한 일이 있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나름으로 重要하지만 靑少年期가 되면 더욱 性慾은 旺盛해져서 그와같은 行爲를 하게 될 可能性은 女子에게나 男子에게나 다 같이 많아지고 開放社會이고 보니 그럴 可能性이 더욱 많아질 것은 이미 常識에 속하는 일이다. 그뿐 아니라 서울과 같은 大都市에는 每日같이 未婚母가 數名씩 생겨나고 그중에는 또 많은 젊은이들이 性病患者가 되고 있다는 事實을 볼 때에 오늘의 韓國의 實情이 決코 樂觀하고 安心만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性倫理面에서나 健康面에서 方法面에서나나 어느모로 보든지 이제는 性問題를 타부視하기만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아직도 性教育의 必要를 이야기하면 識者中에도 가만 두어도 問題를 일으키고 가만두어도 婚姻하면 子女를 出産하는데 오히려 刺戟이 되어서 좋지 않다고 性教育反對論을 펴는 이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性을 타부視하고 모든 사람이 다 正常的이고 道德의이기만한 것을 前提하고 모두가 健康하다고 보는 데서 오는 一面만을 보는 見解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積極的인 面에서 幸福을 追求하고 消極的인 面에서 많은 어려운 問題를 除去, 豫防하는 일에서 다같이 이제는 性教育을 해야하고 이른바 프로그램化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韓國의 實情에서 이제 늦은 感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 識者는 굳이 性教育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純潔教育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主張을 하는 이도 있다. 그것도 一理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을 純潔教育이라고 좁고 均색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고 본다. 性에 관한, 또는 性에 관련된 教育이므로 性教育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안다.

한편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의 行爲를 觀察해 보아도 이제는 合理的, 科學的으로 性教育을 프로그램化할 必要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제 몇가지 理由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例들로서 알 수가 있다.

가령 어린 아이가 3, 4歲가 되면 제법 言語學習이 이루어져 1,000個 以上の 語彙를 가지게 되고 그 語彙를 使用해서 그런대로의 對話가 可能

해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性에 關한 質問, 特히 出産에 關한 質問을 한다. 이른바 口唇期도 口唇期이러니와 이와같은 質問을 받았을 때에 韓國의 어머니의 大部分은 아직도 다리밑에서 주어 왔다거나 왜 그런 것을 묻느냐고 꾸짖는 일이 90%에 이른다. 行動上으로도 이른바 幼兒自慰行爲가 종종 觀察됨은 勿論이다. 初等學生水準이 되면 性差概念이 分明해져 있을 뿐 아니라 그런대로의 各種 性的인 意味가 있는 行爲를 한다. 이같은 現象은 幼兒期부터 계속되는 각종 놀이속에서도 觀察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10歲를 넘게 되면 이미 女子아이는 心身이 女子로서의 特性이 모든 分野에서 싹트기 始作하며 이것이 結局 行動面에 反映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는 보다 많은 關心을 가지게 된다. 男子는 生理的으로는 多少 늦는다 하더라도 行動面에서는 역시 性에 關聯된 것이 許多하게 發見된다. 물론 그 後의 思春期, 靑年中期 등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더욱 性教育의 必要性을 深刻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現象들이 發生하곤 한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積極的으로 알려고 하는 知識, 態度, 方法面에서 性教育을 要求하고 있다. 그럼에도 性教育을 家庭에서나 學校에서 제대로 하지 않을 염니까 親舊들끼리 이야기해서 아는 水準, 不確實한 雜誌에서 取扱되는 지식이나 態度밖에는 거이 바람직한 知識, 方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中高等學校水準學生의 90% 内外가 性教育을 제대로 받고져 하는 希望이 많은 實態調査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 必要性은 充分히 認定할 수 있고 그 時急함을 認定하게 된다.

### 3. 性教育의 方向

이와같이 생각해 보면 性教育의 必要性을 教育的側面에서 論議할 時期는 이미 지나고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가 남은 課題이고 그것을 具現하는 問題만이 남은 것 같다. 아울러 性教育自體의 理論的인 研究도 併行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보아진다. 이런 뜻에서 몇가지 方向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 (1) 性教育의 性格의 再確認

이미 이야기한대로 性教育의 性格은 名實共히 教育의 重要한 一部門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다. 그 바탕은 大體로 다음과 같은 데에 있다.

① 人間教育으로서의 性教育이 認識되어야 한다. 다만 褫褫하거나 아니면 忌避하고 숨겨 두는 對象이 되게 放置할 수는 없는 狀況인 것이 오늘의 社會의 및 時代의 要請이기 때문이다.

② 健康教育을 위해서도 이제는 放置해서 아니된다. 男女七歲不同席으로 異性の 接觸이 容易하지 않은 狀況에서는 그런대로 큰 問題가 없었겠지만 오늘의 狀況은 積極的인 教育에 의해서 스스로의 健康을 維持, 保存케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어 있다.

③ 幸福의 追求를 위해서도 性教育은 새로운 次元에서 講究, 實施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性을 中心하여 正常的인 生活이 營爲되고 健全한 態度, 知識, 方法을 가질 수 있도록 年齡의 水準에 맞추어 指導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異常한 態度와 行動을 豫防하는 點에서도 性教育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된다. 社會에는 性으로 말미암아 許多한 非正常的인 態度와 行動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精神病의인 狀況에까지 빠져 들어가는 者가 있다. 이런 것中에는 積極的이고 바람직한 性教育을 했으면 넉넉히 豫防할 수 있었을 경우가 많다는 點에서도 인정할 수가 있다. 세계는 이렇게 해서 將次 成人이 되었을 때의 幸福을 追求하는 바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도 性教育은 必須的인 것이 아닐 수 없다.

### (2) 性教育의 時期

惑者는 性教育이 必要하다는 것은 認定을 하면서도 그것은 思春期를 前後해서 始作되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婚前에 하면 適當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性教育을 지극히 좁게 어떤 特殊한 部門만을 생각한 데서 나오는 意見이다. 生活教育으로서의 性教育을 생각하게 되면 決코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게 된다. 이미 이야기했던대로 性에 관련된

行動은 이미 어려서부터 나타나는 것임은 굳이 프로이드의 主張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따져 보면 孔子의 七歲부터도 늦은 것이다. 出生으로부터 幼兒期부터 始作이 되는 것이다. 生活로서의 性教育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만 그 內容과 程度와 方法은 文字 그대로 發達心理學的인 原理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幼兒期, 兒童期, 思春期, 青年中期, 婚前 등과 같이 發達狀況에 맞추어서 그 內容과 方法에도 變化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性教育의 프로그램化的 必要가 생겨나게 되는 理由가 있다.

### (3) 性教育의 方法

性教育이 生活教育인만큼 入學前부터 始作되어야 할 것임은 當然한 論理의 歸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에서 性教育은 家庭教育, 學校教育 그리고 社會教育의 水準에서 各各 生活教育의 形態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學校에서는 教科指導中 關聯된 內容이 나타나게 되면 適切하게 指導하도록 하는 것이 包含되어야 할 것임은 勿論이다. 그러므로 性教育도 學校에서는 教育課程의 重要한 部門이 되어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非教科的方法을 活用하는 일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指導方法으로는 適時에 適切한 方法을 쓰되 言語, 슬라이드, 映畫, 討議 등 各種의 方法을 活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指導者 및 成人教育

이와 아울러 꼭 생각해야 할 일은 性教育을 받는 것은 자라나는 世代만이 아니라는 點이다. 成人이 아직도 性教育에 對한 理解가 없고 指導者 自身이 性教育의 理論과 方法에 理解가 不足함으로 이들을 위한 社會教育, 또는 現職教育으로서의 敎員教育 등이 尙중이 論議, 研究되고 實施되어야 할 것이 要望된다. 여기에는 다만 教育的인 側面에서만 아니라 醫學的인 側面에서의 教育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새삼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